헌차 위에 새차 사는 합리적 바보

(욥기 11:1~20)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3.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5.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9.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헌차 위에 새차 사는 합리적 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헌차 위에 새차 사는 합리적 바보'

제가 독일에서 머물 때에 폭스바겐에서 79년도에 나온 파사트를 샀습니다. 이미 11~12년이나 된 중고차였지만 제 생애의 첫 번째 차였기에 차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이제 그 차를 타고 독일의 시골길을 달리면 넓은 벌판에 전원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곳을 한참 지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2차선인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제 차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추월을 당할 것 같아 엑셀을 있는 대로 밟아서 추월을 방해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됩니다. 반대편 차선에 지금은 차가 안 보이지만 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속을 해서 빨리 비켜주는 것이 올바른 운전 예절인데 내 차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차가 더 빠르게 가속해서 제 차를 앞서 가더니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웁니다. 젊잖게 생긴 신사가 내리더니 막 야단을 쳤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독일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비겁하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차가 프랑스 차 시트로엥이었습니다. 300마력이 넘는 플래그쉽의 세단이었습니다. 그 차가 엑셀을 밟으니까 제

트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가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 때의 일을 생각해봅니다. 제 차는 75마력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차가 없지만 옛날에는 아우디에서 나오는 50마력 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마력 시트로엥은 아우토반을 달릴 때 사용하고 시내에서 타기 위해서 11년 된 75마력 차를 그대로 남겨둔다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일견 들으면 75마력짜리 12년 된 차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합리적인 판단 같기도 합니다.
시트로엥이 기름은 좀 더 먹겠지만 시내주행을 못하는 차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에서 헌 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차 한 대만 있으면 고속도로든 시내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이런 합리적 바보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곧 나의 판단력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판단력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소원할 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일회성이든 장기적인 소원이든 단기적인 소원이든 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과 소원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판단과 소원의 능력은 스스로 판단하고 소원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소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주체성은 75마력의 12년 된 파사트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은 신형 시트로엥입니다. 이 파사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게 되자 사람들은 새 차를 등지고 헌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주체성을 활용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살라고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소발은 욥의 상황을 보고 화를 냅니다. 지금 재앙이 임한 상황을 보면 입이 열 개라도 말이 없어야 하는데 욥을 보니 끝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앞선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를 반박합니다.
12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신 이유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한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한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재앙은 곧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볼 때에, 내게 재앙이 임했다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잘못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감히 크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소발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깨달음이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결정된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결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없이 높고 깊고 넓고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이해로는 다 파악할 수 없기에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틀린 점이 무엇일까요?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들의 말보다 욥이 옳다고 하십니다.
다음 장에서도 욥은 소발의 말에 대해 기가 막혀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지혜를 몰라서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지금 욥의 신앙상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인간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사용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달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높고 깊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도 내에서는 인간의 주체성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발의 이러한 생각은 욥의 신앙을 오해함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욥의 삶은 스스로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범주 내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욥은 열 명의 자녀와 재산들을 주셨다가 왜 가져가셨는지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복을 주셨으니까 화를 주실 수도 있다고 여기며 삶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주신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에도 가져가시는 이유를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발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욥은 다만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뿐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할 때에 꼬치꼬치 이유를 따져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욥은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주시거나 가져가시거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 합니까?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체성을 믿고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의 삶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상태가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죽는 순간에도 그 삶 자체를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오직 하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는 기쁨과 만족의 신들이 이 땅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행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주시지 않는 분이시냐? 물론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주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요구한 적도 없고, 자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아내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도, 아내를 지키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마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성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내 능력과 판단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넘기면 된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소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300마력짜리 시트로엥을 가진 사람이 12년 된 75마력짜리 파사트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60km로 달려야만 하는 지역에서도 그냥 시트로엥을 타고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는 굳이 나의 주체성을 활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서 작은 영역에서도 이끌어 가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조차 인간의 주체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이러한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나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소발과 다르게 이미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소발의 말은 어긋나 있었습니다. 다만 욥이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욥기서의 주제를 관통하

는 이 고통의 의미를 소발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모두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발과 친구들처럼 합리적 바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욥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발은 자기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체적으로 살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지성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합리적 바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부분의 영역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죽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꺾여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일에 대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매순간 십자가 바라보기를 잊지 않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세상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주체성이 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새 차를 놔두고 12년 된 75마력 차를 계속 타겠습니까? 시내든 고속도로든 300마력짜리 새 차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가장 사소한 일에까지 적용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체성이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나의 몸을 장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